

# 지식질서의 구조변동과 동아시아

김상배

## 1. 머리말

### 1) 왜 지식질서 연구인가

한국은 21세기 지식강국의 꿈을 꾸어도 되는가? 최근 정보화 분야에서 한국이 이룩한 성과를 놓고 희망찬 기대가 한창 피어오르고 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측면에서는 명백히 비(非)강대국인 한국이 정보화 분야에서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대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 IT 분야에서 세계적인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의 보급 면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동통신 분야에서도 상위권에 올라 있다. 게다가 정보화시대의 꽃인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 음악, TV 드라마, 영화가 일으킨 한류(韓流) 열풍은 지식과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자부심을 한껏 고취시켰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온라인게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성공은 미래 디지털산업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한다. 이러한 사례는 지식을 키워드로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한국이 강국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한 조건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근대화와 산업화의 시대에는 역사의 보조역에 머물렀던 한국이 정보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역사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 꿈을 꾸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과연 21세기 지식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는 지식강국론의 여세를 몰아 한국이 앞장서서 동아시아 지역의 IT 협력을 주도하자는 논의도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아울러 동아시아가 역사적·문화적으로 지니고 있는 유사성을 충분히 활용해 동아시아에 지역공동체를 구축하자는 구상도 싹을 틔우고 있다. 지식과 문화 분야의 협력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안보 분야 지역갈등의 구도를 해소하고 동아시아의 경제적 발전과 번영을 도모할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IT와 대중문화 분야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룩한 성과와 잠재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논의는 미국 주도의 지구화와 정보화에 대한 대항담론의 성격도 강하게 띠고 있다. 빠른 변화와 치열한 경쟁을 속성으로 하는 지식과 문화 분야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국 단위의 개별 대응을 넘어서 다자적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이 실질적인 힘을 얻어 동아시아의 지식력을 고양하고 독자적인 지식질서를 형성하는 데 성공할 경우 이는 21세기 세계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한국의 지식강국화와 동아시아 지식질서에 대한 기대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 벌어지고 있는 세계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 세계적인 화두 중 하나는 지식이다.

기술, 과학, 정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콘텐츠 등 세상의 변화를 논하는 이들마다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모두 넓은 의미에서의 지식을 가리키고 있다. 21세기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식이라는 자원이 중요한 시대라는 것이다. 실제로 21세기의 지식은 빠르고 정확한 무기를 만드는 핵심이며, 우수한 상품을 값싸게 만드는 요체이고,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은 21세기 세계정치의 저변에서 물질·지적 조건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능력이다. 간혹 우리는 이러한 지식이 야기하는 획기적인 변화에 주목해 여러 가지 수식을 붙여 혁명(革命)을 논하기도 한다. IT 혁명, 기술혁명, 정보혁명, 지식혁명, 디지털혁명, 인터넷혁명, 커뮤니케이션혁명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른바 혁명이라는 현상도 따지고 보면 지난 수백 년 동안 줄곧 있어왔던 사건들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21세기의 세계정치를 이해하는 데 지식이라는 변수가 다른 어떠한 변수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21세기 지식강국의 꿈도 지식 변수의 부상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조류에 대응하려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식전략이 부분적으로 실현된 결과이다. 실제로 지난 수백 년 동안 근대 국제질서의 물질·지적 토대를 제공한 근대 지식질서는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조변동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반도체,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신기술의 발달은 지식을 생산하는 신산업 패러다임을 창출했으며, 나아가 지식의 내용과 개념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권력의 성격마저도 변화시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식의 생산·전파·소비를 둘러싸고 새로운 제도가 출현하고 있으며, 그 외중에 국내외 세력 간의 역관계도 변화를 겪고 있다. 더 나아가 IT의 발달이 야기하는 사회문화적이고 인식론적

인 변화를 강조하는 논자들은 근대 산업문명을 넘어서는 탈근대 정보문명의 도래를 예견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세계 지식질서의 변동에 대한 논의가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것은 19세기 중후반 동아시아 국가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뼈아픈 역사적 경험 때문일 것이다. 당시 서구의 근대 세력이 동아시아에 밀려왔을 때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대포와 군함’ 자체의 위력이 아니라 그 ‘대포와 군함’이 서구인들이 근대를 거치면서 이룩해낸 지식체계의 종합적인 산물이라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서구는 인류의 지식을 양적·질적으로 확장시킨 근대 지식질서의 창출을 바탕으로 이른바 군사혁명, 산업혁명 등으로 불리는 근대적 사회변화를 이룩했다. 다시 말해 서구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인쇄혁명과 과학혁명, 그리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등이 이룩해놓은 근대적 지식체계의 토양을 기반으로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중후반 이렇게 복합적인 형태를 띠는 서구의 근대화와 그 저변에 놓인 근대 지식질서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둔했던 선조들의 잘못으로 후손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도 컸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계 지식질서로 가는 길목에 선 우리가 추구할 21세기 지식전략의 내용은 무엇인가? 사실 따지고 보면 20세기 후반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것도 지난 100여 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익혔던 근대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발전모델을 수립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토록 따라잡으려고 애쓰던 서구 주도의 근대 지식질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정치가 다시 한 번 구조변동에 접어들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에 적응하는 게임에서 동아시아는 더 이상의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야심찬 도전의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러나 21세기 지식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세계 지식질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이 세계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정보화시대를 맞아 발생하고 있는 세계 및 동아시아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을 역사적·이론적·경험적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지식질서 연구는 어디까지 왔나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지식질서의 세계정치를 본격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군사질서나 경제질서에 초점을 둔 기존의 연구는 지식질서를 다른 국제정치 변수에 대해 종속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화로 인해 지식질서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한 세계사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마당에 세계정치 연구에서 더 이상 지식 변수를 종속적으로만 다룰 수는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은 군사·안보 변수나 경제·산업 변수의 뒤에 숨어 있던 지식 변수를 들추어내는 작업일 것이다. 이렇게 발상을 바꾸어 돌아보면 기존의 국제정치 연구들도 지식질서를 직접적으로 강조하지 않았을 뿐이지 간접적으로는 다루어왔음을 발견하게 된다. 좁은 의미의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몇 가지 예외적인 시도로는 다음 세 가지 그룹을 들 수 있다.

첫째, 지식력의 분포가 형성하는 지식질서의 구조, 즉 ‘지식구조’를 탐구하는 현실주의 시각의 연구이다. 명시적으로 지식구조의 연구를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많은 연구가 이러한 시각을 수용하고 있다. 영국의 국제정치

학자인 스트레인지(Susan Strange)의 연구는, 전형적인 현실주의 시각은 아니지만, 국제정치학에서 지식구조 연구의 효시를 이룬다(Strange, 1994).

둘째, 지식질서의 제도적 측면으로서 지식 관련 국제기구나 국제레짐에 주목하는 자유주의 시각의 연구이다. 지식과 권력의 관점에서 국제기구를 탐구한 연구로는 에른스트 하스(Ernst Haas)의 연구가 그 기원을 이룬다(Haas, 1990). 이 외에도 카우워(Cowhey, 1990), 드레이크(Drake, 2000), 셀(Sell, 2003), 브래먼(Braman, 2004), 메이와 셀(May and Sell, 2006) 등과 같은 연구를 들 수 있다.

셋째,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관점에서 지식질서의 관념적 측면을 탐구하는 입장이다. 피터 하스(Peter Haas)의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에 대한 논의가 초기적인 형태이다(Haas, 1992). 이 외에도 팔란(Palan, 1997), 드잘레이와 가스(Dezaley and Garth, 1996; 2002), 스테인버그와 맥도웰(Steinberg and McDowell, 2003), 마테른(Mattern, 2004), 애들러와 번스타인(Adler and Bernstein, 2005) 등이 지식의 세계정치 및 지식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펼쳤다.

좁은 의미의 국제정치학의 범위를 넘어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비슷한 주제를 다룬 연구는 수없이 많다. 오히려 지식질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범위를 설정하고 그중에서 지식질서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을 골라내는 일이 관건이 된다. 예를 들어 역사학, 이론과 사상, 사회과학, 동아시아 지역연구 등의 분야에서 지식질서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작업들이 있다. 그중에서 눈길을 끄는 그룹을 몇 가지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학 분야에서 주로 문화사의 시각을 취하고 있는 버크(Burke, 2000)와 정보사 분야의 헤드릭(Headrick, 2000), 기술문화사 분야의 미사

(Misa, 2004)는 서구 근대 지식질서의 형성을 살펴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동아시아 지식질서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연구로는 래크너, 아멜룽과 커츠(Lackner, Amelung and Kurtz, 2001), 래크너와 비팅호프(Lackner and Vittinghoff, 2004), 리우(Liu, 2004), 엘만(Elman, 2006)이 유용하고, 콜린스(Collins, 1998)의 학파 네트워크 연구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전통에서 세계질서의 역사를 탐구한 이니스(Innis, 1950; 1951)는 지식질서 연구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니스의 논의를 정보화 시대에 적용한 디버트(Deibert, 1997)의 연구도 지식질서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이론적 논의를 담고 있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전신과 인터넷이 중국 정치에 미친 영향을 탐구한 저우용밍(Zhou, 2006)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이론과 사상 분야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의 저작들이 지식질서 연구에 큰 시사점을 준다. 특히 푸코(Foucault, 1972; 1994)는 지식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권력과 질서에 대한 논의에 밑거름을 제시한다. 푸코를 문화연구에 적용한 사이드(Said, 1979; 1994)도 서구 중심의 지식질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다. 이 밖에 문화와 권력을 탐구한 부르디외(Bourdieu, 1984)도 큰 도움이 된다. 한편 그람시주의 시각에서 세계질서를 탐구한 코모르(Comor, 1994; 2001), 쉘(Sum, 2003), 루퍼트(Rupert, 2003) 등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커뮤니케이션 제국주의 시각에서 국제질서를 탐구한 갈통(Galtung, 1971)의 연구도 참고할 만하다. 또한 21세기 제국론의 시각에서 일종의 지식 네트워크로서의 다중(多衆, multitude)을 논하는 하트와 네그리(Hardt and Negri, 2004)의 연구도 유용하다.

셋째,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정치경제학이나 정책학의 시각에서 국제개발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를 탐구한 연구들이 지식질서 연구에 주는 시사

점이 크다. 특히 최근 지식 네트워크와 싱크탱크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들이 발견되는데, 스톤(Stone, 1996), 스톤, 데넘과 가넷(Stone, Denham and Garnett, 1998), 에이벌슨(Abelson, 2002), 스톤과 데넘(Stone and Denham, 2004), 리치(Rich, 2004), 스톤과 맥스웰(Stone and Maxwell, 2005) 등이 그것들이다. 동아시아의 싱크탱크 연구를 위한 시론으로는 고바야시 히데오(2002), 강원택·박인휘·장훈(2006) 등이 있다. 또한 국제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기술혁신이나 생산, 그리고 지식경제 일반에서 나타는 지식 네트워크를 탐구한 연구로는 에른스트(Ernst, 2000), 슈타인 외(Stein et al., 2001), 크로스, 파커와 새슨(Cross, Parker and Sasson, 2003)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신용평가기관의 지식 네트워크를 탐구한 싱클레어(Sinclair, 2005)의 연구가 눈에 띈다. 이 밖에도 정치지리학의 전통에서 이루어진 애그뉴(Agnew, 2007)의 지식질서 연구도 유용하다.

끝으로 동아시아 지역연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식질서 연구에 유용한 연구들이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동아시아 차원의 정보혁명에 대해서는 하치지언과 우(Hachigian and Wu, 2003), 조반네티, 카가미와 쓰지(Giovannetti, Kagami and Tsuji, 2003), 치양(Qiang, 2007), 동아시아 지식질서에 대한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으로는 모리 가즈코와 모리카와 유지(毛里和子·森川裕二, 2006)를 들 수 있다. 사회과학 분야의 동아시아 지식질서를 탐구한 멘코프, 에버스와 체이(Menkhoﬀ, Evers and Chay, 2005), 백맨(Backman, 2005) 등도 매우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또한 동아시아 차원에서 정보혁명이 군사, 안보, 경제, 문화, 정치 등의 분야에 미친 영향으로는 골드만과 맨켄(Goldman and Mahnken, 2004), 길과 카라스 외(Gill and Kharas et al., 2006), 애벗(Abbott, 2004), 라오와 클로펜스테인(Rao and Klopfenstein, 2002), 이와부치 고이치(2004), 손열



(2006; 2007), 바네지(2005) 등이 있다. 이 밖에 최근 한국에서 이루어진 지식질서 관련 연구로는 김선빈 외(2007)의 정책 지식 생태계 연구가 있다.

이상의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학은 물론 사회과학 분야 전반에서 지식질서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빈곤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지식질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제 첫걸음을 내딛은 수준이다. 군사·안보나 경제·산업과 대비해볼 때 지식 분야가 아직 질서가 창발(emergence) 중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의 현실을 돌아보면 지식질서는 빠르게 그 형태를 드러내고 있어 이를 연구하는 학계에 대한 요구도 급증할 것이라 전망된다. 이처럼 현실의 변화를 따라잡는 지식질서 연구가 빈곤함을 자성하여 이 책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2000년 이래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지식과 세계정치의 동학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중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결실을 맺은 작업을 들자면 하영선(2004), 김상배 외(2004), 평화포럼21(2005), 하영선·김상배(2006) 등이 있다.

이러한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이 책은 기존의 지식과 세계정치에 대한 논의를 한 단계 더 구체화시켜서 동아시아라는 공간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 기존의 작업이 지구 차원과 한반도 차원이 직접 만나는 구도였다면 이 책은 그 중간에 동아시아라는 독자적인 지역공간을 설정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21세기 세계정치와 동아시아에서는 지식을 둘러싸고 도대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기에 국제정치학이 지식 변수에 새롭게 주목해야 하는가?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지식을 중심으로 세계정치와 동아시아를 보는 연구가 새롭게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식 변수를 중심으로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화를 재구성하고 이에 대한 동아시아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작업의 이론적·실천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 책의 총론을 겸하는 이 장은 정보화시대의 지식질서와 동아시아의 세계정치라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논의를 전개했다. 제2절에서는 지식질서란 무엇이고, 그 구성요소는 무엇이며, 또한 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탐구했다. 제3절에서는 지식질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제4절에서는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이 군사, 안보, 경제, 문화, 정치 등과 같은 세계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5절에서는 정보화시대의 지식질서를 둘러싼 세계정치를 동아시아라는 지역공간을 염두에 두고 탐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끝으로 제6절에서는 동아시아 지식질서가 어떻게 구성되며, 더 나아가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이 동아시아 지역질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책에 수록된 각 장의 요약을 겸해 소개했다.

## 2. 지식질서의 개념적 층위

### 1) 지식질서란 무엇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도대체 지식질서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지식질서는 지식의 생산·유통·소비가 일정하게 조직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지식이 생산·유통·소비되는 방식은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권력과 밀접히 연관된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끈다. 다시 말해 지식의 생산·유통·소비 방식이 행위자들의 행위에 영

향을 미치는 일종의 ‘구조’로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스트레인지가 ‘지식 구조’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스트레인지는 지식구조를 “어떠한 지식이 발견되고 그 지식이 어떻게 저장되며 누가 어떠한 수단을 통해 누구와 어떠한 조건하에서 그러한 지식을 소통하는가를 결정하는 구조”로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지식구조는 유사 이래 존재해왔으며 중세와 근대를 거쳐 최근의 정보화를 계기로 더욱 교묘한 형태의 권력을 발휘하면서 세계정치의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구조 또는 지식질서의 개념은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국제정치학적 의제의 가시적 구도 안으로 편입시킬 뿐 아니라 지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21세기 세계정치의 동학을 살펴보는 준거를 제공한다(Strange, 1994).

이렇게 이해되는 지식질서라는 것은 오늘날에 이르러 새삼스럽게 새로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유사 이래 존재해왔다고 볼 수 있다. 지면상의 제약으로 상세하게 서술할 수는 없지만 지식질서의 역사적 궤적에 대한 연구도 상당 수준 축적되었다. 예를 들어 서구 지식질서의 경우만 보더라도 고대 이집트, 바빌로니아, 그리스 등을 비롯해 로마제국에 이르기까지 형성되었던 독자적 지식질서에 대한 관심이 다방면에서 제기되었다(Innis, 1950). 중세의 봉건국가와 교회가 독점하고 있던 지식질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과학국가(scientific state)’의 등장에 따른 근대 국민국가 중심의 지식질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19세기 팍스 브리태니커(Pax Britannica)의 지식질서는 학계의 주요 연구대상이었다(Burke, 2000; Headrick, 2000; Misa, 2004). 현대에 이르러서는 20세기의 팍스 아메리카나와 21세기 제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식패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Deibert, 1997).

이러한 지식질서의 역사적 궤적은 서구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동아시아의 경우 중국식 천하질서는 지식질서를 중심으로 작용한 세계질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이용희·신일철 대담, 1972; Elman, 2006). 특히 16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지식질서와 서구 지식질서의 만남은 지식을 탐구하는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매우 값진 주제이다. 서구에서 유입되는 지식이 단순한 ‘외래지식(foreign knowledge)’이나 ‘서양지식(western knowledge)’의 위상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신지식(new knowledge)’으로 의미 변환을 겪는 과정에는 생생한 권력정치의 모습이 살아 있다(Lackner and Vittinghoff, 2004). 서구나 동아시아의 지식질서 이외에도 전통적으로 이슬람 지역이나 힌두교를 기반으로 하는 인도 지역에서도 독자적인 지식질서가 존재했다(터너, 2004; 알바네스, 2003). 이러한 맥락에서 다른 세계질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형태로 존재했던 각 지역별 지식질서가 상호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면서 변천해왔는가에 대한 비교연구가 절실하다.

## 2) 지식질서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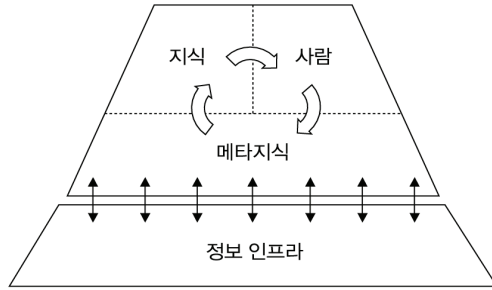
이러한 지식질서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동어반복이지만 ‘지식’으로 구성되는 질서가 지식질서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식질서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지식의 개념적 실체는 무엇이며 그 개념적 내포와 외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지만 지식이라는 용어가 학술 개념이 아니라 일상용어라는 점에서 혼란이 발생한다. 게다가 지식은 주관적으로 그 존재를 느낄 수는 있지만 사회과학적으로 객관적인 실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변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논하는 학자에 따라 각기 다른 개념을 염두에 두고 논지를 펼치는 경우가 허다

하다. 예를 들어 경제학자, 경영학자, 교육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철학자 등이 만나서 지식과 지식질서에 대한 논의를 벌인다면 각자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기 때문에 아마도 ‘장님 코끼리 만지기’를 연상시키는 동문서답의 토론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사실 지식이 무엇이나의 문제는 유사 이래 인간의 학문 활동이 추구했던 근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하튼 이 책에서 지식의 개념 자체에 대한 논의를 길게 벌일 의도는 없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지식에 대한 탁상공론을 벌이느니 오히려 이 책의 주제인 지식질서에 대한 논의로 직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지식의 개념에 정통하다고 지식질서의 개념을 더 잘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식질서라고 부르는 것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구성요소에 주목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하고자 한다. 지식 그 자체의 개념은 실체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한 지식 가운데 생산·유통·소비의 방식을 걸으며 드러내면서 이른바 질서를 구성할 정도로 눈에 띄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가시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부분에 해당하는 지식질서의 모습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질서의 네 가지 층위에 주목한다.

먼저 지식 생산의 전제가 되는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전달되느냐를 보여주는 층위를 생각해볼 수 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정보 인프라’의 층위이다. 이는 지식질서의 ‘물질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각종 인쇄물 및 전자 기록장치 등과 같이 정보를 담아내는 매체의 형태로 드러난다. 전통적으로 서적 유통이나 우편 및 통신 네트워크 등이 이러한 정보 인프라의 층위를 구성했다. 정보화시대에는 컴퓨터 같은 IT 하드웨어나 글로

〈그림 1-1〉 지식질서의 개념적 층위



별 미디어, 인터넷 같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정보 인프라는 지식 그 자체는 아니지만 정보가 유통되는 성격과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질서의 구성과 작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식질서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다음으로 정보를 소통하고 지식을 생산하는 주체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층위에 주목해야 한다. 그야말로 지식질서를 구성하는 ‘사람’의 층위 또는 지식질서의 ‘인적 층위’라고 할 수 있다. 이 층위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지식을 전수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능력을 배우는 과정이 발생한다. 이 층위가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갖는 것은 특정한 종류의 지식은, 많은 경우 사람(또는 조직)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이른바 암묵지식(tacit knowledge) 또는 배태된 지식(embedded knowledge)의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인(匠人)에게서 분리해낼 수 없는 기능(技能, *techné*)이라든지 조직의 역사와 구조에 배태된 형태의 조직지(組織知) 등을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지식질서의 층위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 지식을 배태하고 있는 사람, 즉 인적자원 그 자체를 보는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는 앞의 두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산물로서의 지식 자체가 만들어내는 지식질서의 층위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지식질서라는 말에 가장 걸맞은, 좁은 의미에서 본 ‘지식’의 층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층위의 내용을 구성하는 지식에는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거론하는 기술지식, 과학지식, 이념지식 등이 해당된다.<sup>1)</sup> 이러한 지식들은 일반적으로 텍스트나 영상 및 기타 코드화된 지식자원의 형태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건물의 설계도나 무기의 제조법, 그리고 석학이나 성현의 가르침을 담은 서적 등을 떠올릴 수 있다. 이렇게 물화(物化)된 형태로 존재하는 지식은 축적된 양과 분포된 형태를 관찰함으로써 누가 어떠한 지식을 더 많이 생산하고 그렇게 생산된 지식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파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끝으로, 지식질서의 층위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추상적인 ‘메타지식(meta-knowledge)’의 층위를 빼놓을 수 없다. 메타지식은 앞서 언급한 정보 인프라나 인적·지적자원이 생산되는 방향을 결정하고 지식의 생산을 둘러싼 담론을 규정하며 생산된 정보나 지식을 분류해 질서를 부여하는 지식을 의미한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보면 지식 그 자체는 아니다. 일종의 ‘지식에 대한 지식(knowledge about knowledge)’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지식질서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다른 독창적인 점은 바로 이러한 메타지식의 층위를 따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이른바 정보혁명은 바로 이 층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이 책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이 책이 주목하는 메타지식은 기술표준, 분류체계, 인식론과 방법론, 세계관과 가치관에 밀접히 관

---

1) 이 책의 제2부를 구성하는 제3장, 제4장, 제5장은 지식질서의 각 층위 중 가장 엄밀한 의미의 ‘지식’ 그 자체가 구성하는 지식질서의 층위에 주목해 기술지식, 과학지식, 이념지식 등의 세 층위에서 관찰되는 동아시아 지식질서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련된 지식 등이다.

### 3) 지식질서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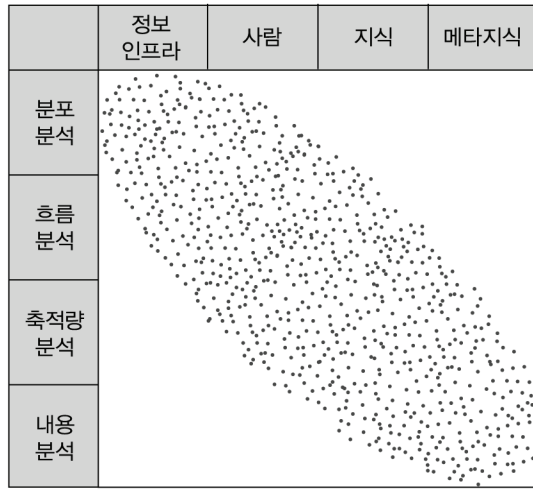
이러한 지식질서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 파악할 것인가? 다시 말해 지식 질서의 네 개 층위에서 지식을 생산하는 능력과 그러한 능력의 배열로서의 지식질서를 측정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재야 할 것인가? 지식질서가 단일한 요소로 구성되지 않고 적어도 네 개의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파악한 만큼 지식질서를 측정하는 데에도 층위별로 고유한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지식질서의 각 층위에 일대일로 대응되는 도식적인 구도에서 고안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의 선택적 친화성은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질서를 탐구하기 위해 이 책이 채택한 네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포 분석(distribution analysis, D-분석)’이다. 이는 지식질서에서 물리적 네트워크와 같이 고정되어 있는 정보 인프라의 보급 상태나 이러한 물리적 네트워크의 연결 여부와 정도, 그리고 정보 인프라를 따라 흐르는 정보흐름의 방향과 양 등을 측정하는 데 원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계지도 위에 가늘고 굵은 선을 활용해 전 세계의 전신, 전화, 인터넷 보급망을 그려놓은 그림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흐름 분석(flows analysis, F-분석)’이다. 이는 최근 네트워크 이론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회 연결망 분석’이 원용하는 방법이다. 앞서의 분포 분석이 정태적인 상태에서 교류량을 나타내는 네트워크의 형태만을 보여준다면 흐름 분석은 동태적인 차원에서 네트워크상의 각 노드의 위상과 노드 간 링크의 형태 및 방향성 등을 그려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흐름



〈그림 1-2〉 지식질서의 측정방법



분석은 지식을 담고 있는 사람들의 흐름이나 지식자원 및 서비스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그려내는 방법이다.

셋째, ‘축적량 분석(stockpile analysis, S-분석)’이다. 이는 양적 자원의 형태로 파악할 수 있는 인적·지적자원의 배분 상태를 측정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만약 지식자원을 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누가 지식자원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첨단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와 과학자의 수, 실용적·이론적 지식의 산출량, 이러한 인적·지적자원을 생산하는 데 들인 돈의 액수 등과 같은 변수는 지식질서의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끝으로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C-분석)’이다. 앞의 세 가지 분석 방법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 접근법이다. 그러나 지식 변수는 그 특성상 주관적인 형태로 존재하므로 계량적인 방법에

의해 포착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대부분이다. 사실 지식질서의 대부분은 '느낄 수는 있으나 보여주기는 힘든' 주관성 또는 간(間)주관성의 영역에 속한다. 앞서 언급한 추상적인 의미의 메타지식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식질서의 분석은 지식의 내용 그 자체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사례연구 또는 질적인 해석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지식질서를 연구하는 데 위의 네 가지 분석 방법은 연구 대상이 되는 지식질서 층위의 성격에 따라 선택된다. 탐구하고자 하는 지식질서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그려내려면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이 조합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이상의 방법들을 해당 주제의 성격에 맞추어 선별적으로 적용했다. 예를 들어, 제2장에 수록된 공동연구팀의 작업 「정보화시대 지식질서의 계량적 이해」는 주로 계량적 방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지식질서의 층위를 그려보았다. 특히 정보 인프라, 인적자원, 지식자원, 메타지식의 네 가지 차원에서 분포 분석, 흐름 분석, 축적량 분석으로 파악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했다. 이에 비해 제2부 '동아시아 지식질서의 구조변동'과 제3부 '동아시아 세계정치의 변환'에 수록된 각 논문은 계량적인 방법으로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정성적인 차원에서 내용 분석의 방법을 취해야 하는 주제를 사례연구의 형태로 다루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지식질서 분석 방법이 지식질서를 보는 이론적 시각에 따라 선택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식질서란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론적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근대 국민국가가 구성하는 국제질서의 상(像)에 대한 이론적 견해가 이른바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 중 어떠한 시각에 서느냐에 따라 분분하듯이 정보화의

맥락에서 작동하는 지식질서의 모습과 동학에 대해서도 이론적 시각에 따라 상이한 이해와 설명이 가능하다. 이상에서 언급한 지식질서의 네 가지 구성요소의 배열에 대한 객관적 관찰만으로는 지식질서 전체의 동태적 모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절에서는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에 대한 분석틀을 여러 국제정치이론의 시각에서 고민해보았다.

### 3. 지식질서 구조변동의 동학

#### 1) 질서란 무엇인가

지식질서의 변화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질서(order)’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질서라는 말도 지식이라는 말만큼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여서 간혹 여러 가지 오해를 낳기도 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지식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질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어떻게 형성되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하고 변화하는가? 이와 관련해 이 책은 영국의 국제정치학자인 헤들리 불(Hedley Bull)이 최소한으로 규정한 질서 개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Bull, 1977).

간단히 정리하면, 불이 말하는 질서의 개념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불이 말하는 세계정치에서의 질서란 ‘무질서(disorder)’에 대비되는 뜻으로 사용하는 최소한의 의미이다. 즉, 아무런 규칙 없이 쌓여 있는 책 더미와는 달리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

의 배열과도 같은 의미이다. 둘째, 불이 말하는 질서, 즉 일정한 규칙을 갖는 배열은 반드시 정의롭고 규범적인 상태를 전제로 하는 개념은 아니다. 질서란 단지 실증적으로 가능한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할 뿐이다. 다시 말해 책꽂이의 책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꽂혀 있지 않더라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만 있다면 이는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다. 끝으로, 이러한 질서는, 법과 제도와 같은 차원에 이르지 않는 것이라도, 일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사실상(*de facto*)의 메커니즘을 통해 구성되고 작동한다.

이러한 개념 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 세계정치에서 질서란 ‘현존하는 정치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정치’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질서의 형성이라는 것이 미리 정답이 정해져 있는 종류의 게임이 아니라 행위자들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볼 때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이해된 질서의 형성과 작동은 이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중립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특정한 형태의 권력을 매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수잔 스트레인지의 지식구조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하며 소비하는 방식의 일정한 패턴은 그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행위를 규정하는 ‘권력 구조’로 작동하게 마련이다. 여기서 관건은 이러한 질서가 지식 분야에서 어떠한 권력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되고 유지되며, 그리고 또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분야에는 이러한 질서 개념을 원용해 세계 커뮤니케이션 질서 또는 지식질서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키는 일군의 학자들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격은 캐나다의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로널드 디버트(Ronald Deibert)이다. 그는 해럴드 이니스(Harold Innis)가 제시한 바

있는 미디어 이론 전통에서 정보매체와 세계질서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그는 고대부터 20세기 초반까지를 다룬 이니스의 연구를 이어받아 20세기 후반 정보화시대를 맞이해 등장한 IT라는 정보매체의 성격이 지식의 권력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세계질서를 구성하는 정치조직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Innis, 1950).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디버트는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특정한 공간에서 발견되는 ‘정치적 권위의 구조’를 세계질서로 개념화하고 그러한 세계질서의 변화를 세 가지 차원에서 파악한다. 첫째는 행위자 간의 세력변화를 의미하는 ‘배분적 변화’이고, 둘째는 이러한 배분적 변화의 이면에 흐르는 ‘사회적 인식론의 변화’이며, 끝으로 이러한 변화를 아우르는 ‘제도적 차원의 변화로서 세계질서의 변환’이다(Deibert, 1997).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한 디버트의 세 가지 분석틀은 신그람시주의 국제정치이론가인 로버트 콕스(Robert Cox)의 분석틀을 연상시킨다(Cox, 1981). 실제로 디버트 본인도 헤들리 불의 질서 개념과 병행해 콕스의 분석틀을 원용하고 있다. 콕스의 분석틀을 요약하자면 권력의 세 가지 범주인 물질적 능력, 관념, 제도 등이 상호작용하는 속에서 형성되는 역사적 구조를 사회세력, 국가형태, 세계질서라는 세 가지 분석수준에서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콕스는 물질적 능력, 관념, 제도의 상호작용 속에서 세계정치의 객관적·주관적·제도적 측면이 접합되면서 세계정치의 패권구조와 이에 대한 대항구조가 상호작용하는 동학을 탐구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틀이 지니는 장점은 기존의 세계질서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변화하는가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이다.

## 2) 지식질서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러한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이 책은 지식질서의 다층적 동학을 잡아내기 위한 분석틀로서 이익(interests)·제도(institutions)·관념(ideas)의 삼각 구도에 의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틀을 굳이 명명하자면 ‘구성적 제도주의(constitutive institutionalism)’ 분석틀이라고 할 수 있다(김상배, 2007). 이러한 분석틀에 입각해서 보았을 때 지식질서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변한다는 것인가? 그러한 과정에서 누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어떠한 수단을 통해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하며 소비하는 과정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가? 나아가 기존 지식질서의 주도권에 대한 도전은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이 책이 제시하는 대답은 〈그림 1-3〉에서 보는 것처럼,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으로 요약된다.

첫째,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자들의 세력관계 변화라는 차원에서 파악된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이다. 이는 신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이 상정하는 능력의 분포로서 ‘구조(structure)’의 변화, 즉 권력배분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에 따른 행위자 간 관계위상의 변화를 수반한다(Waltz, 1979; Gilpin, 1987). 다시 말해 이러한 구조변동은 지식의 생산·유통·소비를 둘러싼 행위자 간의 경쟁을 통해 발생하며, 그 결과 행위자들이 보유하는 지식자원의 분포가 변화함으로써 지식구조가 변동한다. 이러한 지식구조의 변동은 앞서 언급한 분포 분석이나 축적량 분석 등을 통해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에 의지해 그리 어렵지 않게 그려낼 수 있다. 이렇게 파악되는 지식자원의 분포 변화는 지식질서에서 가장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사실상(*de facto*) 메커니즘을 대변한다(Strange, 1994).

〈그림 1-3〉 지식질서의 구조변동

	정보 인프라	사람	지식	메타지식
이익	지식자원 분포의 변화			
제도	지식레짐 및 제도의 변화			
관념	지식 네트워크의 변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보화시대의 지식경쟁을 통해 형성되고 변화하는 오늘날의 지식구조에서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는 행위자는 단연코 미국이라는 사실이다(김상배, 2004; 김상배 외, 2004). 예를 들어 현재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국제 인터넷망은 미국을 허브(hub)로 구축되어 있어 유럽과 아시아 및 태평양 간의 교류량은 미국과 이들 세 지역 간 교류량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인터넷의 국내 보급률 면에서도 미국은 한국,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 몇 나라를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들에 앞서 있다. 단편적인 수치를 넘어 미국이 지식질서를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 분야에서 발견된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반도체,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등과 같은 IT 산물을 최초로 구상하고 개발한 나라이며, 이를 활용해 IT 산업을 일으키고 디지털 경제의 불을 일으킨 나라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미국은 정보화시대의 구도를 잡고, 밑그림을 그리고, 기본 채색을 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지식패권을 엿볼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자.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gateway)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먼저 컴퓨터의 전원스위치를 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

운영체계를 부팅하고, 웹브라우저의 아이콘을 클릭하고, 원하는 사이트의 인터넷주소를 입력하거나 정보검색 사이트를 찾아가서 검색창에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는 순서가 될 것이다. 적어도 이러한 경로를 거쳐야 인터넷의 바다에서 필요한 정보를 건져 올릴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러한 인터넷 관문을 장악하는 문지기가 대부분 미국의 기업이나 기관이라는 사실이다. 컴퓨터 사용자의 대다수가 미국의 대표적 IT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윈도 운영체계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한다. 인터넷주소체계는 미국에 기반을 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가 관리한다.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구글이나 야후 같은 정보검색 사이트도 미국 기업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위 ‘인터넷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은 단순한 국민국가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를 허브로 하는 다양한 행위자의 네트워크라는 점이다(김상배, 2008).

둘째, 지식을 둘러싼 국제제도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서 파악되는 지식 질서의 구조변동이다. 이는 국가들이 협력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세계정치의 제도적 측면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전통의 국제정치이론에서 유추할 수 있는 변화의 이미지이다(Keohane and Nye, 1998; Braman, 2004; Slaughter, 2004). 이는 지식질서의 법률상(de jure) 메커니즘에 해당되는데, 지식자원의 안정적 배분을 위한 공식적인 국제기구나 비공적인 국제레짐의 수립, 양자적·다자적 외교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Haas, 1990; Cowhey, 1990; Braman, 2004). 최근 들어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정보통신이나 지적재산권 또는 콘텐츠 관련 국제레짐의 새로운 형성 및 변동은 21세기 지식질서의 변동을 엿보게 한다(Sell, 2003; May and Sell, 2006).

특히 새로운 국제레짐이 출현하거나 기존의 국제레짐이 IT 분야로 관할



권을 확장하려는 과정에서 이른바 신·구레짐의 갈등과 협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인터넷의 초창기부터 ICANN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최근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과 같은 전통적인 정부 간 국제기구가 도전하고 있다 (Goldsmith and Wu, 2006).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과 세계지적소유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간의 관할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 표준화, 정보 격차 해소, 개인정보, 사이버 보안, 콘텐츠 규제 등과 같은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쟁점을 둘러싸고 국제기구 간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는 지식레짐의 형성과 변동 현상을 총괄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한편 기존에는 정부 간 레짐이었던 분야에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가 참여하면서 이른바 ‘글로벌 거버넌스’의 가능성이 탐색되기도 한다.

이러한 국제레짐의 변동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제도적 틀 짜기의 과정에 지식패권으로의 미국의 이해관계가 부단히 투영된다는 점이다. 최근 WSIS 과정에서 ICANN 중심의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방어적 태세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지적된다. 또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의 지식패권에 대한 개도국의 도전을 견제하기 위해 국제 무역레짐에 기댄 미국의 통상압력 움직임도 중요한 사례이다. 1980년대 후반에 발생했던 미·일 반도체 분쟁의 사례에서 보건대, 미국은 WTO의 국제레짐에 의거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독자적인 행보에 제동을 걸고자 한다. 이렇듯 정보화시대의 세계 지식질서에서 미

국이 지식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세계정치의 현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지식패권에 대한 도전이 부단히 제기되고 있음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지식레짐의 형성 과정에서 관찰되는 미국의 독주에 대한 유럽, 일본, 기타 개도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끝으로, 정보·지식이 교류되고 관념·규범·정체성을 공유하는 지식 네트워크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서 파악되는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이다. 이러한 변화는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서 상정하는 질서 개념의 연속선상에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Palan, 1997; Mattem, 2004). 이러한 변화는 국가 간 세력 경쟁 및 제도 변화의 차원을 넘어서는 관념 차원에서 본 세계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지식질서에서 가장 추상적인 차원에 해당하는 ‘관념 형성의 구조(ideational structure)’ 또는 담론구조의 변화이다. 정보화시대의 세계정치에서 이러한 담론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국제적 사회 연결망의 부상, 전문가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구성하는 인식공동체나 정책 엘리트 싱크탱크 네트워크의 활성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Haas, 1992; Adler and Bernstein, 2005).

실제로 21세기 세계정치에서 이러한 지식 네트워크들은 기술이나 과학 뿐 아니라 종교와 이념 등을 매개로 형성되고 있으며, 환경이나 인권운동, 반(反)세계화 운동과 정보공유(copyleft) 운동, 심지어는 테러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부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국경을 뛰어넘어 활동하는 이러한 지식 네트워크의 부상은 국민국가 단위로 구성된 세계정치의 관념과 규범 및 정체성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변환의 과정을 겪고 있는 세계정치의 중요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지식의 초국적 생산과 전파 및 소비의 과정은 국민국가 단위의 국민정체성(nationality)이 네트워크 환경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정체성, 즉 네트워크 정체성이

출현하는 과정을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지식 네트워크의 부상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지배담론에 대한 대항적 권력담론의 부상이다. 특히 인터넷을 매개로 한 지식의 변환과 네트워크의 확산에 기대어 이러한 대항담론이 활성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대 지적재산권 개념에 대응하는 ‘정보공유’의 대항담론은 지난 수년간 성장 잠재력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아울러 미국 중심의 문화패권에 대항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세대가 생산해내고 있는 새로운 문화담론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신세대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게임,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동영상이나 기타 디지털콘텐츠 등과 같은 문화상품의 생산 및 소비 형태를 보면 위계적 네트워크에서의 일방적 소비자가 아닌 수평적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쌍방향적인 ‘프로슈머(prosumer)’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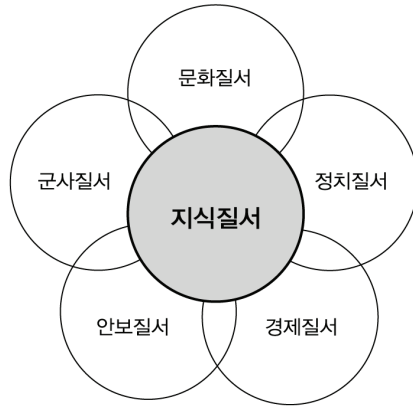
요컨대 정보화시대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은 다양한 층위에서 다차원적으로 발생한다. <그림 1-3>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 인프라, 사람, 지식, 메타지식 등의 층위에서 파악되는 지식질서의 이익·제도·관념의 차원에서 복합적인 구조변동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파악된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은 지식경쟁의 와중에 발생하는 지식자원의 분포 변화인 동시에 지식 분야의 국제기구나 국제레짐의 형성과 변화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 지식질서의 변화는 새로운 관념을 바탕으로 한 지식 네트워크나 지식공동체의 부상까지도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누가 어떻게 이 분야의 주도권을 잡는가인 문제이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1세기 세계정치에서 지식 분야의 주도권이 곧 세계질서 전반의 주도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4. 지식질서의 세계정치적 영향

이제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이 세계질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때가 된 것 같다. 21세기 세계정치에서 지식질서의 변화는 군사질서, 안보질서, 경제질서, 문화질서, 정치질서 등 세계질서 전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은 세계정치가 이루어지는 물질·지적 조건의 변화를 의미한다. 100여 년 전의 세계정치가 군함과 기차를 타고 전보를 치고 전화를 거는 시대적 환경에서 펼쳐졌다면, 오늘날의 세계정치는 초고속 제트기와 항공모함을 타고 인터넷, 인공위성, 휴대폰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세상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다름 아니라 IT로 대변되는 새로운 기술혁신과 지식 생산의 역량 증대, 나아가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는 인류의 능력 향상에 기인한다. 우리 삶의 물질·지적 조건이 향상된 만큼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정치가 추구하는 목표나 세계정치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모습과 행태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식 변수의 부상에 따른 세계정치 변화는 지식이 21세기의 핵심적인 권력자원으로 부상하는 이른바 권력변환(power transformation)의 현상을 발생시킨다. 지식을 매개로 하여 권력이 기반으로 삼는 자원과 그 작동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Rosecrance, 1999; Nye, 2004). 이러한 과정에서 지식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세력분포 또는 이와 관련된 제도적·관념적 메커니즘은 변화를 겪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세계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지식질서는 여타 세계질서의 영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범주로서의 위상을 부여받을 뿐 아니라 여타 세계질서에도 역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태적 범주로 설정된다. 지식질서의 위상이 부각되는

〈그림 1-4〉 지식질서와 세계질서: 무궁화 꽃의 비유



21세기 세계정치는 〈그림 1-4〉와 같은 ‘무궁화 꽃의 비유’를 통해 묘사할 수 있다. 이 책이 탐구하는 것은 무궁화 꽃의 가운데 위치한 지식질서와 가장자리의 5개 영역이 겹치는 교집합의 영역이다. 이는 지식이 21세기 세계정치의 작동에서 구성적 변수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지식 변수의 부상이 군사, 안보, 경제, 문화, 정치 분야의 세계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sup>2)</sup>

첫째,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이 군사질서에 미치는 영향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정보혁명을 활용한 미국의 군사패권 강화 사례이다. 1990년

2) 이 책에서는 군사질서와 안보질서를 무궁화 꽃의 다른 꽃잎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군사와 안보의 영역을 여타 세계질서의 영역과 같은 차원의 독자적인 영역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넓은 의미에서 군사질서 또는 군사안보질서에 속한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해 주목을 받고 있는 사이버안보 또는 정보보안(또는 정보보호)의 영역을 강조하기 위해 안보질서의 영역을 따로 설정해 분석을 수행했다.

대 이래 지식 변수는 이른바 군사 분야 혁명(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의 모습으로 군사질서의 영역으로 침투했다. RMA는 첨단 IT를 응용해 산업화시대의 군사력이 정보화시대의 군사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했다. 군사기술 혁신 과정을 통해 첨단 지휘자동화체제인 C4ISR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 Reconnaissance), 원거리 정밀타격, 유연성 증대, 파괴력 향상 등의 목표가 추구되었다. 이 변화는 기술 분야의 혁신에 그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군사 분야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이른바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진 군사전략과 군사조직의 변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RMA에 기반을 둔 군사변환은 탈탈냉전(post-post cold war) 시대의 새로운 위협요인인 테러, 대량살상무기(Weapon of Mass Destruction: WMD) 확산 등에 대처해 미군의 군사태세를 바꾸게 했는데, 전진배치 위주의 고정된 군사력 운용에서 기동 위주로 전환되면서 해외 주둔 전략을 대폭 변화시켰다. 이러한 군사기술 분야의 변화가 군사질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크게 강화시켰음은 분명하다.

둘째,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이 안보 또는 보안 분야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다. IT의 부상은 기존 국민국가 중심의 안보질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안보위협 가능성을 높여놓았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확산은 영토성을 기반으로 국가가 독점해온 안보 유지 능력의 물적 토대를 잠식하고 있다. 인터넷 환경은 테러리스트 집단에 의해 도발될 이른바 ‘비대칭 전쟁(asymmetric wars)’의 가능성을 크게 부추겨놓았다. 정보화시대에 이러한 비대칭 전쟁의 효과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바로 사이버테러와 정보보안이다. 예를 들어 해커(hackers) 또는 크랙커(crackers)에 의해 세계 주요 기관의 웹서버의 작동이 정지된다거

나 웹사이트가 해킹당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외에도 데이터베이스의 파괴,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 기타 정보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이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사이버 공격을 가하거나 그러한 공격에 대한 정보보안장치를 마련하는 능력이 군사안보뿐 아니라 복합안보의 측면에서 중요한 권력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야말로 지식 그 자체가 안보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부상하기에 이른 것이다.

셋째,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이 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이다. 특히 IT의 부상은 무역, 금융, 산업 등의 영역에서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인터넷의 보급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일국 단위를 넘어서는 디지털 무역질서의 출현을 예견하게 한다. 21세기 세계경제에서 전자상거래를 도입해 유지·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 여부는 동등한 조건에서 무역을 행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글로벌 스탠더드’로 부상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전자금융 시스템의 전 세계적 확산은 금융 분야에서 국가 간 경계를 허문 지 오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작동하는 세계 금융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능력은 세계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항목이 되었다. 한편 정보산업 분야는 지식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영역이다. 게다가 IT 분야에서 단순한 기술경쟁을 넘어서는 표준경쟁의 부상도 지식 분야의 게임의 규칙을 장악하려는 새로운 경쟁의 양식이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상배, 2007). 또한 지식기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깔린 정보 인프라를 활용하는 초국적 생산 네트워크(cross-national production networks: CPNs)의 부상은 다층적인 지식의 활용이 21세기 산업경쟁에서 핵심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Ernst, 2000).

넷째,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이 문화질서에 미치는 영향이다. IT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적 자원으로 부상했을 뿐 아니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요체가 되었다. 정보화시대 미국의 문화패권을 표현하는 용어 가운데 실리우드(Siliwood)라는 말이 있다. 이는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와 할리우드(Hollywood)를 합성해서 만든 말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영화산업의 종주로 군림해온 할리우드의 스튜디오들이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실리콘밸리의 IT기업들과 제휴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구체적으로 실리우드 현상은 영화제작에 컴퓨터그래픽 같은 특수효과가 도입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이러한 실리우드의 영향력은 세계적으로 대단해 국내외에서 흥행에 성공한 영화 중 실리콘밸리에서 개발된 첨단 IT의 특수효과를 사용하지 않는 영화가 없을 지경이다. 이러한 실리우드의 등장은 기술의 우위가 문화의 지배로 전환되는 정보화시대 지식질서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다시 말해 실리콘밸리의 IT 지원을 받은 할리우드는 거대한 자본과 우수한 기술로 포장된 실리우드의 생산품을 전 세계로 전파하면서 종래에 행사해온 문화패권의 메커니즘을 정교화하고 있다.

끝으로,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이 정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다. 지식질서의 변화에서 시작된 21세기 세계질서 각 영역의 변화는 세계정치 단위체의 구성 원리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권위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IT의 발달로 인해 기존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국제체제의 기본 구조에 대한 관념, 즉 근대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질서에 대한 관념도 변화를 겪고 있다. 이렇게 IT가 변화시키고 있는 근대 국제정치의 구성 원리 중 하나가 바로 주권의 원칙이다. 실제로 세계화와 정보화시대를 맞이해 근대적 국가주권의 관념은 다양한 영역에서 침식을 경험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터넷, 기술표준,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등과 같은



IT 분야의 지식주권(knowledge sovereignty)은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국내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자민주주의의 관념과 제도의 보급도 국내 정치질서의 변화뿐 아니라 국가를 넘어서는 이념적 네트워크의 부상 을 부추기고 있다. 여하튼 새롭게 출현하는 세계 정치질서의 관념은 다층 적인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복합적인 세계질서의 등장을 예견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 인프라에서부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에 이르는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은 세계정치질서 변화의 구성적 변수로서의 역할을 특특히 하고 있다.

## 5. 지식질서와 동아시아의 세계정치

### 1) 동아시아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는 논의의 초점을 지구 차원에서 동아시아 차원으로 옮겨보자. 정보화시대를 맞이해 동아시아 지식질서는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것이 동아시아 지역질서 전반, 나아가 세계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 일까? 이 책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지구 차원에서 벌어지는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이 동아시아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떠한 대응 양상을 보이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 의식을 염두에 두고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이 동아시아 군사, 안보, 경제, 문화, 정치질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질서의 세계정치 문제를 탐구하는 데 굳이 동아시아라는 독자적 지역공간을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IT 분야에서 일고 있는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논의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실제로 최근 들어 IT 분야에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IT라는 아이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보 분야에는 북한 핵문제나 각국 간 도서 분쟁 등과 같은 대결 구도가 아직도 잔존해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등의 협의체가 작동하고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문화 분야에서도 일본의 역사교과서나 중국의 동북공정 등과 같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마찰이 여전하다. 이에 비해 새롭게 부상하는 IT 분야에는 아직 뚜렷한 이해갈등이 표면화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협력의 요소가 강조된다. IT 산업에는 동아시아 국가 간의 상호보완적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동아시아 국가 간의 문화적·언어적 유사성은 동아시아 정보문화권 형성의 전망을 낳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를 하나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IT 분야의 협력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지역갈등 구도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역내 성장을 도모하지는 이른바 ‘동아시아 IT 담론’이 부상하고 있다(김상배, 2006).

동아시아 IT 담론은 미국 주도의 지구화와 정보화에 대한 대항담론의 성격이 강하다. 빠른 변화와 치열한 경쟁을 속성으로 하는 IT 분야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국 단위의 개별 대응을 넘어 다자적 연합진전을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의 개별 국가들이 지구화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이라는 완충공간을 설정하려는 움직임의 의미한다. 이는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통합의 움직임과도 다르지 않다. 실제로 미국 주도의 지식패권에의 단순

한 편승을 거부하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세계 지식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IT 산업의 국내구조에서 비롯되는 유사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IT 산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발견된 미국의 제국적 행태는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이에 대항하는 방어적 담론의 등장을 부추겼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즉 윈텔(Wintel)로 대변되는 미국 IT기업의 독점적 지배와 이를 옹호하는 지적재산권과 자유무역 국제 레짐의 형성은 동아시아 IT 산업에서 대항담론의 싹을 틔우게 했던 것이다 (김상배, 2007).

또한 동아시아 IT 담론은 단순한 방어적 담론을 넘어 최근 변모하는 국가전략의 공세적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부상을 계기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동아시아 공간의 전략적 활용에 대한 인식이 배경에 깔려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에서 발견되는 동아시아 IT 담론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추진되었던 미국 중심의 해양 세력을 중시하는 전략에서 중국을 위시한 대륙 세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발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물질적 차원에서 크게 성장한 동아시아의 역량을 바탕으로 등장한 이러한 전략 발상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후지를 토대로 동아시아만의 독자적 표준설정에 성공할 경우 이는 세계적으로 막대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동아시아 IT 담론은 단순한 지식 분야만의 담론이 아니라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21세기 국가전략 담론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그런데 이러한 동아시아 IT 담론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

3)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고 있는 동아시아 담론에 대해서는 백영서 외(2005), 손열(2006; 2007), 김영작·김기석(2006), 하영선(근간) 등을 참조하라.

멀다. 현재 동아시아 IT 협력에 대해서는 아직도 초보적인 구상만 존재할 뿐 그나마 진행된 동아시아 IT 협력도 아직 정부 간 협력 구상의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IT 분야에서 부상하는 동아시아의 대항담론을 현실화할 방안은 무엇인가? 동아시아 IT 담론은 그 현실화를 저해하는 내재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지는 않은가? 동아시아 IT 협력이 지향하는 대항담론은 전략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바람직한 대안인가? 동아시아 IT 담론이 현실화에 성공해 제도화를 추구한다면 동아시아 지식 질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짜일 것인가? 그리고 지식 분야의 사례를 통해 엿보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미래는 어떠한 모습인가? 이러한 과정에서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형성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각국의 21세기 지식전략은 어떻게 짜여야 할 것인가?

19세기 이래 근대화와 산업화의 과정을 돌아보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지구 차원의 도전에 대응하는 동시에 동아시아라는 지역공간을 매개로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세력과 경쟁하는 일면을 보여주었다. 최근 정보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동아시아의 정보산업이나 사이버공간 및 오프라인 정보사회의 움직임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식질서 분야의 변화 양상은 군사, 안보, 경제, 문화, 정치 분야 등 동아시아 질서 전반의 변동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실제로 지식질서와 지역질서의 구조변동 과정에서 동아시아는 ‘개방된 집중 공간’으로서 지구 차원의 변화와 동아시아 각국 차원의 변화를 포괄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2) 동아시아 지식질서를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

정보화를 맞이하는 동아시아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을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 19세기에 발생한 서구 산업문명의 전파 과정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 지식질서의 급격한 구조변동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20세기에 접어들어 서구의 근대로부터 배워 터득한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근대화와 산업화의 목표를 추격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1세기 이른바 정보문명의 시대를 맞이해 부상하는 새로운 지식질서의 도전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19세기에 겪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지식전파와 수용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가? 21세기 신지식을 담은 미디어의 전파와 수용(또는 자체적인 생산)을 둘러싼 행위자 간의 이해갈등 양상은 어떠한가, 지식을 다루는 기존의 제도와 새로운 제도의 갈등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가? 요컨대 근대화와 산업화시대의 동아시아 지식질서를 둘러싼 국제정치와 정보화시대의 그것을 대비해보았을 때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21세기 동아시아 지식질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주의 지식질서로 대변되는 각기 다른 패러다임의 경쟁 메커니즘이다. 첫째는 근대화와 산업화시대부터 존재했던 동아시아 차원의 '구(舊)지식질서'의 패러다임이다. 이는 물론 동아시아의 전통 지식질서의 패러다임은 아니고 19세기 이래 근대 서구 지식질서의 영향을 받은 전통과 근대의 복합체일 것이다. 둘째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해 지구 차원에서 생산되어 전파되는 새로운 지식질서의 패러다임이다. 이는 주로 실리콘밸리로 대변되는 세계 지식질서의 중심에서 발산되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마지막은 정보화시대를 맞이해 동아시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모색되는 새로운 지식질서의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세 가지 지식질서의 패러다임 경쟁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떠한 미래를 구성해갈 수 있을 것인가? 정보화시대를 맞이해 동아시아는 동아시아발(發) 새로운 지식질서의 패러다임을 생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역외에서 수입한 새로운 지식질서의 패러다임에 흡수되어버릴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산업화시대의 성공을 뒷받침한 구지식질서의 패러다임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러한 과정은 궁극적으로 21세기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식질서의 창출 과정에서 지구발(즉, 미국발) 지식질서와 동아시아발 지식질서의 세력관계를 설정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21세기 지식의 세계정치가 19세기 지식의 국제정치와 크게 다른 점은 '전파의 화살표'가 반드시 지구 차원에서 동아시아 차원으로 들어오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동아시아의 부상, 특히 이른바 '동아시아의 르네상스'(Gill and Kharas et al., 2006)라고 불리는 정보화 분야에서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공을 돌아보면 미래에 대한 전망이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다(Hachigian and Wu, 2003).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 지식질서의 미래와 그 세계정치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차원에서 제기되는 질문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김상배, 2006).

첫 번째 질문은 지구 차원의 미국 변수와 관련된다. 실제로 미국은 자연 지리적으로는 동아시아 국가가 아니지만 정치지리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동아시아 국가이다. 지지학(geo-knowledge)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에도 미국은 중요한 동아시아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 변수를 염두에 두는 것은 동아시아 지식질서의 담론이 현실적으로도 뒷받침되어 세계 지식패권에 대한 대항담론으로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직·간접적 견제로 인해

좌절되어 세계 지식구조의 하위구조로서의 위상에 안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냐의 문제를 의미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세계 지식질서를 대변하는 세력과 동아시아 지식질서를 대변하는 세력 간의 권력분포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이다. 또한 이는 최근의 대항담론으로서의 동아시아론과 관련해 동아시아의 범위를 어떻게 짤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동아시아 IT 담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동아시아 지식질서의 모습이 세계패권으로서의 미국을 참여시키는 개방형 모델일 것이냐, 아니면 동아시아 지역패권국(특히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형 모델일 것이냐의 문제이다.

두 번째 질문은 만약 부분적으로 대항담론의 도전이 성공해 동아시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지식권력 구조가 형성될 경우 한·중·일의 역관계는 어떻게 구현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망이 현재의 동아시아 IT 협력의 진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만약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패권에 대한 대항전선을 형성한다면 그 실력이 얼마만큼이나 발휘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아울러 동아시아의 지식질서에서 현재 누가 패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패권 변동이 동아시아 IT 담론의 현실화와 더 나아가 제도화에 주는 전망은 무엇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거대한 배후지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일본과 한국을 추격하는 데 성공할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대항담론의 중심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지, 단적으로 말해 미래 동아시아의 지역표준을 누가 주도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피부에 와 닿는 공간으로서의 한·중·일이라는 동북아시아를 넘어서는 개방된 동아시아의 공간을 창출하는 문제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나 APEC 같은 지역협력의 틀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이른바 ‘개방된 집중 공간’으로서의 동아시아라는 공간을 발상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여기서 ‘개방된 집중 공간’이라 함은 ‘동아시아’의 범위를 다층적인 개방공간으로 설정한다는 의미이다. 이 책에서 상정하는 동아시아의 범위는 ① APEC, ② ASEAN+3, ③ 한·중·일의 3단계로 설정되는 경계가 고정되지 않은 다층적 공간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개방된 다층적 공간으로서 동아시아는 ‘동아시아’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묶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사실 이렇게 동아시아라는 개방적 다층공간에 ‘관념적 집중성’을 부여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끝으로, 동아시아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을 논함에 있어 각국 차원의 국내 변수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식 분야의 협력을 위해 동아시아 각국의 국내제도와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며, 그러한 연속선상에서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결국 이러한 제도화의 문제는 동아시아 지식질서의 구성에 임하는 행위자인 각국 차원에서 발견되는 국내적 제도 역량을 어떻게 결집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동시에 이는 동아시아 차원에서 지식 분야의 제도표준을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지식 분야에서 협력과 경쟁에 임하는 동아시아 국가의 정책이나 국내 제도를 보면 20세기 산업화시대의 동아시아형 산업 모델이 21세기 정보화시대에도 그대로 투영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21세기 지식전략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미래 구상과 정책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 6. 이 책의 구성

### 1) 동아시아 지식질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제2부 ‘동아시아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에서는 앞서 언급한 지식질서의 층위 중에서 좁은 의미에서 본 ‘지식’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세 가지 층위, 즉 기술지식, 과학지식, 이념지식 등의 층위에서 동아시아 지식질서의 구조를 분석하고, 최근 정보화시대를 맞이해 벌어지고 있는 구조변동의 동학을 밝혀본다.

제3장 「동아시아 정보기술질서: 반도체와 공개소프트웨어의 사례」에서 배영자 교수는 기술지식의 층위에서 벌어지는 동아시아 지식질서의 구조와 동학을 분석했다. 배 교수가 주목한 것은 공개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OSS)와 메모리 및 비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중국·일본 간에 진행되고 있는 경쟁과 협력의 문제이다. 최근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삼국이 IT 분야 세계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IT 분야 세계질서의 큰 구도는 대부분 미국 IT기업에 의해 설정되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 구도 내에서 자신의 몫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시아 IT 분야에서 성공적인 협력의 사례로 손꼽히는 동북아시아 OSS 포럼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 차원의 표준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을 주도하고 기술표준을 선도하는 차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이 세계 반도체시장의 절반 이상을 석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도전하는 상황이다.

배 교수의 판단에 따르면 이러한 배경에서 진행되는 한·중·일 IT 협력이 이른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다소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중·일 IT 협력이 동아시아 기술공동체로 발전되지는 못한다 해도 한·중·일 삼국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다. 적어도 삼국 간에 이루어지는 협력은 각국 IT 산업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이는 나아가 향후 삼국 간의 잠재적 갈등을 완화하거나 관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의 공동 관심사인 I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소 역설적이게도, 동아시아 IT기업들이 한편으로는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적절하게 협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4장 「탈실증주의 전파와 동아시아 지식질서의 변환」에서 김준석 박사는 과학지식의 층위에서 벌어지는 동아시아 지식질서의 구조와 동학을 분석했다. 김 박사가 주목한 것은 20세기 사회과학 분야의 방법론과 인식론에 큰 영향을 미친 탈(脫)실증주의와 관련된 지식의 생산·전파·수용이다. 지난 수 세기에 걸쳐 근대 유럽에서 비롯된 실증주의 과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양 분야를 아우르면서 국제적인 문명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1980년대 말 냉전의 붕괴 이후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과학지식의 관념은 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험세계에 대한 관찰과 실험을 바탕으로 영구불변의 법칙을 발견하려는 확실성의 과학으로서의 실증주의는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과학지식의 유연적·비합리적·비일관적 성격을 강조하는 탈실증주의는 1960년대 이래 서구 과학계에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는 사회과학의 제 학문 분야에서도 확인되는데, 예를 들어 국제정치학의 경우에도 실증주의 인식론과 방

법론에 대한 탈실증주의 도전이 거세어졌다. 그 결과 과학자의 임무는 사실과 가치를 엄격하게 분리하고 대상의 규칙성을 발견하며 궁극적으로는 영원불변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포기되기 시작했다.

19세기 이래 실증주의 과학지식이 국제적인 문명표준이 된 것처럼 이제 탈실증주의도 불완전하게나마 역사의 전면으로 부상하는 중이다. 그 결과 실증주의 국제정치학이 동아시아에 수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탈실증주의 국제정치학의 수용 속도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동아시아 삼국 간에는 수용 속도와 수용 방식에서 일정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먼저 서구 문명에 노출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더디고 불완전한 실증주의의 수용을 보였던 일본의 경우 탈실증주의 국제정치학도 비교적 완만하게 수용되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압축 성장, 압축 수용의 극단적 사례를 보여주는데, 단적으로 말해 실증주의와 탈실증주의 국제정치학이 거의 동시에 수용되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비교적 활발하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실증주의와 탈실증주의 국제정치학을 수용해 왔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 탈실증주의의 수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규범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제5장 「동아시아 구성적 지식질서와 지역정체성의 변환」에서 전재성 교수는 이념지식의 층위에서 벌어지는 동아시아 지식질서의 구조와 동학을 분석했다. 전 교수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해 부상하고 있는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의 가능성을 민주주의의 정치이론과 철학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있다. 실제로 21세기 동아시아는 교통과 커뮤니케이션의 발전 덕택에 하나의 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정보화시대에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과 집단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 지역을 구성해나갈 것인가? 과거와 같이 국민국가 중심의 권력, 이익, 정체성

요인, 즉 ‘국제’의 관념에 의거해 동아시아 지역을 인지하고 정체성을 유지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정보화라는 새로운 상호 의사소통 체계 속에서 기존의 국민국가 체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탈영토적 지역을 새롭게 구성해 관리해나갈 것인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는 동아시아인들은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새로운 지역정체성을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이러한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지역정체성을 관리하는 구성적 지식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전 교수는 동아시아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 민주주의, 초국가적 정치커뮤니케이션의 부상이 기존 국민국가 중심의, 그리고 권력과 이익 중심의 지역구성을 변화시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이 국내 민주화, 특히 전자민주주의를 통해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구성적 지식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변화가 국가를 넘어 동아시아 시민사회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리고 지역을 구성하는 지식이 어떠한 모습으로 정착되는지의 문제를 탐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 교수가 밝혀보고자 한 것은 과연 오프라인상에서 기존의 국민국가 내에 물리적으로 갇혀 있는 동아시아인들이 온라인에서 새로운 전자공론장(e-public sphere)을 창출하고 있는지의 문제였다. 아울러 지역 단위의 구성적 지식을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만남이 오프라인에서의 민주적 평화를 넘어 온라인에서의 전자민주평화론(e-democratic peace)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탐구했다.

## 2) 동아시아 지식질서는 세계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제3부 ‘동아시아 세계정치의 변환’에서는 제2부에서 논한 동아시아 지식 질서의 구조변동이 동아시아 지역질서 전반, 즉 군사·안보·경제·문화·정치 등의 다섯 가지 영역에 미치는 영역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질서의 변환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제6장 「정보화시대 동아시아의 군사변환 수용: 일본의 사례」에서 강상규 박사는 정보화시대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이 동아시아 군사질서의 변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강 박사가 주목한 것은 지구 차원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변환이 동아시아 국가, 특히 일본에 수용되는 과정이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군사질서의 구조변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현재 각국의 상황을 보면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원거리 정밀타격, 유연성과 파괴력 향상을 위한 군사 분야 혁명(RMA)의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전장 인식 능력과 지휘 통제 능력, 작전 운용과 신속성, 네트워크화와 유기적 연계성 등과 같은 군사변환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처하고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전략적 안보위협에 노출되어 있지 않으며, 군사적 지원이나 첨단기술의 보유 정도도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실제로 동아시아에서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안고 있는 대테러 전쟁 수행의 목표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근대적인 의미에서 본 주변국과의 정규전 수행의 목표가 더 부각되어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각국은 정보화시대의 달라진 안보환경에 자신만의 독특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 접어들면서 변화하는 대외 위협요인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04년 12월 ‘방위계획대강’을 통

해 지구 차원에서는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리즘의 확산을,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동향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일본인에게 좀 더 실감나는 것은 불량국가인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이다. 일본인의 인식에서 이러한 문제는 동아시아형 테러와 다를 바 없다. 일본의 이러한 인식은 미국의 일본 중시 정책과 9·11 테러 이후 일본의 미일동맹 강화노선과 맞물리면서 일본이 자신의 국익을 미국의 입장과 동일시하는 동맹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구 차원의 군사변환에 미국과 발맞추어 대응하면서 일본이 노리는 것은 급부상하는 중국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견제함과 아울러 지역과 세계정치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른바 ‘보통국가화’로 대변되는 일본의 국가전략은 평화헌법을 중시하던 기존의 소극적 역할론에서 벗어나 군사적 역할의 확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완만하면서도 집요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제7장 「정보보안 분야의 지식질서와 동아시아」에서 이상현 박사는 정보화시대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이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변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박사가 특별히 주목하는 사례는 인터넷 사용이 활성화되고 사이버공간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국가들이 벌이고 있는 정보보안 분야의 경쟁과 협력이다. 오늘날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혁명은 국제정치 행위자 간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현실세계와 사이버공간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는 시대에 제기되고 있는 정보화시대의 안보 문제는 국가 간의 정치적·이념적 대결 양상을 넘어 국가와 비(非)국가 행위자 간의 ‘비대칭 전쟁’이라는 새로운 안보위협을 출현시켰다. 이러한 비대칭 전쟁이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정보전쟁이다. 최근 들어 중전의 군사안보 분야에 국한된 안보

논의가 좀 더 복합적인 안보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 그 외중에 정보보안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보전쟁이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제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보보안의 문제는 군사안보 분야보다는 사이버공간에서 개인 정보보호나 기업 차원의 정보보호 및 네트워크 보안의 차원에서 제기되어 온 주제이다. 최근 지구적 차원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개인정보보호나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초국가적 기구와 제도의 마련 같은 다양한 조정 메커니즘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의 정보보안을 위한 국제협력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한·중·일 삼국은 IT장관회의를 통해 IT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보보안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은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이다. 정보보호 분야에서 동아시아 국가 간의 국제협력이 미진한 이유는 동아시아의 IT 분야가 아직은 협력보다는 이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경쟁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동아시아 국가들이 IT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쟁과 협력의 틀을 보장하기 위한 정보보안 분야 제도화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제8장 「지식질서의 구조변동과 동아시아 금융·무역질서」에서 조화순 교수는 정보화시대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이 동아시아 경제질서의 변환, 특히 무역과 금융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조 교수가 주목하는 것은 전자무역과 전자금융으로 대변되는 이 분야의 변화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양상이다. 21세기 정보화는 영토에 기초한 전통적 국제무역과 금융의 형태와 양상을 변화시키고 복합적인 국제금융과 무역의 이슈를 창출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일본, 중국은 이러한 세계 지식질서

의 구조변동에 대응해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질서 형성과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지역협력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조 교수는 이러한 와중에 세계 금융과 무역의 구조에 대응해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금융·무역질서의 성격을 이익·제도·관념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 동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과 경쟁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정보화시대 지식질서의 구조변동 속에서 나타나는 동아시아 정치경제 질서는 지식질서의 구조변동 문제를 둘러싼 구상과 담론의 제기, 이러한 와중에 불균등한 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이익 갈등, 각 행위자의 구상과 능력을 반영해 형성되는 제도적 메커니즘의 동학에 대한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조 교수는 금융·무역질서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동아시아 질서는 어떠한 대항 전략과 협력을 꾀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아시아 질서의 발전 가능성은 어떠한지의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초점을 맞춘 부분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금융과 무역 분야에서 미국의 지식패권에 어떻게 도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전은 어떠한 성과를 낼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전자무역과 전자금융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제도화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세계경제와 IT 산업 분야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을 염두에 둘 때 향후 세계 경제질서의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9장 「동아시아 지식질서와 문화 네트워크의 모색」에서 민병원 교수는 정보화시대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이 동아시아 문화질서의 변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민 교수가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동아시아 정보문화 네트워크의 가능성이라는 시각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나 문화산업론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기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10여 년에 걸쳐 문화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던 한류의 열기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사실 오늘날 동아시아 지식질서의 문화 패러다임은 이른바 ‘문화산업’과 ‘문화정책’의 논리에 의해 지나치게 지배받고 있다. 문화산업의 논리는 신자유주의 경제관을 기반으로 하여 자본주의적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효율성과 상품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문화 본연의 내재적 가치에 대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문화산업의 동반자 역할을 맡고 있는 문화정책의 논리 역시 중앙집중적 메커니즘을 동원해 하향식 통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의 논리는 창의성을 생명으로 하는 문화의 본질과 배치된다. 문화산업과 문화정책이 부분적으로 대중사회 시대의 문화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날 다자 간 문화 패러다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국 중심주의적 문화 패러다임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문화산업과 문화정책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민 교수가 제시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의 공동의 정체성 확립과 의미권의 구축이다. 민 교수가 제시한 ‘트라디툼(traditum)’의 논리는 문화적 정체성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전통적 요소를 대변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공동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며,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한 ‘의미권’의 구축이 미래의 과제가 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식질서의 문화적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의미권의 구축은 한 나라의 지배가 아니라 사회적 구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작업은 자국 중심주의와 민족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게 해주는 ‘문화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민 교수의 주장이다. 특히 공동의 문화기획 프로젝트로서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론장’을 마련하는 일은 앞으로 동아시아 지식질서의 방향을 가늠 짓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제10장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정치통합: 지식질서의 관점」에서 이옥연

교수는 정보화시대 지식질서의 구조변동이 동아시아 정치질서의 변환, 특히 지역통합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유럽통합의 사례와 비교해서 분석했다. 이 교수가 주목하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비교대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연합(EU)의 정립과 발전 과정을 다루고 있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이다. 최근 유럽통합은 갈등의 제도화라는 ‘부정적 동기’를 넘어 공동 목표의 달성이라는 ‘긍정적 동기’에 대한 가치관이 공유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유럽통합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유럽 지역의 시민, 이익단체, 정당 또는 소속 정치인이 회의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 교수의 관점에서는 공유된 가치관으로 구성되는 지식질서의 존재가 정치질서의 구조변동과 지역통합 과정에서 핵심적이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행위자 간 이해갈등을 끄는 기존의 현실주의 시각과 대비된다. 지식질서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통합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참여국이 공유하는 관념이 어떠한 경로로 형성되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공유된 관념이 어떻게 제도화과정에 기여하는지가 중요하다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과 비교해볼 때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제도화는, 가까운 장래에 공동체 구축의 수준에 이르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본 관념상의 기획으로 흐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1997년의 금융위기를 전후해 여실히 드러났듯이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간에는 서로 각기 다른 지역성의 관념에 입각해 별도의 제도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동북아시아가 경제적 통합과 정치적 균열을 동시에 끌어안고 있는 지역이라면, 동남아시아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성을 구현해가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두 하위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급선무는 근대가 낳은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국민국가를 뛰어넘어 동아시아라는 21세기

‘상상의 지역공동체’를 발상하는 탈근대 시각의 체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교수는 가치관의 공유를 전제로 하는 동아시아 지식질서의 구축이 동북아시아를 넘어서는 동아시아의 지역성 창출과 제도화 정립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전망한다.

## ■ 참고 문헌

- 강원택·박인휘·장훈. 2006. 『한국적 싱크탱크의 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
- 고바야시 히데오. 2002. 『만철(滿鐵): 일본제국의 싱크탱크』. 산치림.
- 김상배. 2004. 「정보화시대의 지식구조: 수산 스트레인지의 개념화를 넘어서」. 《한국정치학회보》, 38(3), 255~276쪽.
- \_\_\_\_\_. 2006.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IT협력의 미래」. 손열 엮음. 『동아시아와 지역주의: 지역의 인식·구상·전략』. 지식마당, 271~311쪽.
- \_\_\_\_\_. 2007. 『정보화시대의 표준경쟁: 윈텔리즘과 일본의 컴퓨터산업』. 한울.
- 김상배 외. 2004. 「정보화시대의 제국: 21세기 미국의 지식/네트워크 세계전략」. 2004년 학술진흥재단 협동연구과제.
- 김상배 엮음. 2008. 『인터넷 권력의 해부』. 한울
- 김선빈 외. 2007. 『대한민국 정책지식 생태계』. 삼성경제연구소.
- 김영작·김기석 엮음. 2006. 『21세기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과제와 전망』. 한울.
- 바네지, 인드라짓 엮음. 2005. 『아시아의 인터넷, 정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선북스.
- 백영서 외. 2005.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작과비평사.
- 손열 엮음. 2006. 『동아시아와 지역주의: 지역의 인식·구상·전략·전략』. 지식마당.
- \_\_\_\_\_. 2007. 『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 지식마당.
- 알바네스, 마릴리아. 2003. 『고대 인도: 문명의 기원에서 13세기까지』. 생각의나무.
- 이와부치 고이치. 2004. 『아시아를 잇는 대중문화』. 또하나의문화.

- 이용희·신일철 대담. 1972. 「사대주의: 그 현대적 해석을 중심으로」. <<지성>>. 2/3  
 월호; 이용희. 1977. 노재봉 엮음. 『한국민족주의』. 서문당에 재수록.
- 평화포럼21 엮음. 2005. 『매력국가 만들기: 소프트 파워의 미래전략』. 21세기평화재단·평화연구소.
- 하영선 엮음. 2004. 『21세기 한반도 백년대계: 부강국가를 넘어서 지식국가로』. 풀빛.  
 \_\_\_\_\_. 근간. 『동아시아공동체: 신화와 현실』. 동아시아연구원.
- 하영선·김상배 엮음. 2006.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 터너, 하워드 R. 2004. 『이슬람의 과학과 문명』. 르네상스.
- 毛里和子·森川裕二 編. 2006. 『圖說ネットワーク解析』. 東アジア共同體の構築 4. 岩波書店.
- Abbott, Jason P.(ed.) 2004.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Internet in Asia and the Pacific: Digital Divides, Economic Competitiveness, and Security Challenges*. Westport, Connecticut: Praeger.
- Abelson, Donald E. 2002. *Do Think Tanks Matter? Assessing the Impact of Public Policy Institutes*. Montreal&Kingst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Adler, Emanuel and Steven Bernstein, 2005. "Knowledge in Power: The Epistemic Construction of Global Governance." Michael Barnett and Raymond Duvall (eds.). *Power in Global Govern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94~318.
- Agnew, John, 2007. "Know-Where: Geographies of Knowledge of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Political Sociology*, 1, 138~148.
- Backman, Michael, 2005. *Inside Knowledge: Streetwise in Asi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Bourdieu, Pierre,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London: Routledge.
- Braman, Sandra(ed.). 2004. *The Emergent Global Information Policy Regim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Bull, Hedley. 1977.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 New

-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urke, Peter. 2000. *A Social History of Knowledge: From Gutenberg to Diderot*. Cambridge: Polity.
- Collins, Randall. 1998. *The Sociology of Philosophies: A Global Theory of Intellectual Chan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omor, Edward A.(ed.) 1994. *The Global Political Economy of Communication: Hegemony, Telecommunication and the Information Economy*. New York: St. Martin's Press.
- Comor, Edward A. 2001. "The Role of Communication in Global Civil Societ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5, pp. 389~408.
- Cowhey, Peter F. 1990.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Regimes: The Political Roots of Regimes for High Technolog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4, Spring, pp. 169~199.
- Cox, Robert W. 1981. "Social Forc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illennium*, 10(2), pp. 126~155.
- Cross, Rob, Andrew Parker, and Lisa Sasson(eds.). 2003. *Networks in the Knowledge Econom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ibert, Ronald J. 1997. *Parchment, Printing, and Hypermedia: Communication in World Order Transform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ezaley, Yves and Briant G. Garth, 1996. *Dealing in Virtu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a Transnational Legal Order*. Chicago, IL: Chicago University Press.
- Dezaley, Yves and Briant G. Garth. 2002. *The Internationalization of Palace Wars: Lawyers, Economists, and the Contest to Transform Latin American States*. Chicago, IL: Chicago University Press.
- Drake, William J. 2000. "The Rise and Decline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Regime." Christopher T. Marsden(ed.). *Regulating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London: Routledge, pp. 124~177.

- Elman, Benjamin A. 2006. *On Their Own Terms: Science in China, 1550-190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Ernst, Dieter. 2000. "Carriers of Cross-Border Knowledge Diffus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Global Production Networks." East-West Center Working Papers, 3.
- Foucault, Michel. 1972.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and the Discourse on Language*. New York: Pantheon Books.
- \_\_\_\_\_. 1994. *The Order of Things: An Archaeology of the Human Sciences*. New York: Vintage Books.
- Galtung, Johan. 1971. "A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Journal of Peace Research*, 8.
- Gill, Indermit and Homi Kharas et al. 2006. *An East Asian Renaissance: Ideas for Economic Growth*. Washington DC: World Bank.
- Gilpin, Robert. 1987.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iovannetti, E., M. Kagami and M. Tsuji(eds.). 2003. *The Internet Revolution: A Global Perspective*.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ldman, Emily O. and Thomas G. Mahnken(eds.). 2004. *The Information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in Asi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Goldsmith, Jack and Tim Wu. 2006. *Who Controls the Internet? Illusions of a Borderless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as, Ernst B. 1990. *When Knowledge is Power: Three Models of Change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as, Peter M. 1992. "Introduction: Epistemic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1), pp. 1-35.
- Hachigian, Nina and Lily Wu. 2003. *The Information Revolution in Asia*. RAND.
- Hardt, Michael and Antonio Negri. 2004. *Multitude: War and Democracy in the Age of Empire*. New York: Penguin Press.

- Headrick, Daniel R. 2000. *When Information came of Age: Technologies of Knowledge in the Age of Reason and revolution, 1700-1850*.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Innis, Harold A. 1950. *Empire and Communic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51. *The Bias of Communicatio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Keohane, Robert O. and Joseph S. Nye, Jr. 1998. "Power and Interdependence in the Information Age." *Foreign Affairs*, 77(5), pp. 81~94.
- Lackner, Michael and Natascha Vittinghoff(eds.). 2004. *Mapping Meanings: The Field of New learning in Late Qing China*. Leiden · Boston, Brill.
- Lackner, Michael, Iwo Amelung and Joachim Kurtz(eds.). 2001. *New Terms for New Ideas: Western Knowledge and Lexical Change in Late Imperial China*. Leiden: Brill.
- Liu, Lydia H. 2004. *The Clash of Empires: The Invention of China in Modern World Making*.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Mattern, Janice Bailly. 2004. *Ordering International Politics: Identity, Crisis, and Representational Force*. New York: Routledge.
- May, Christopher and Susan K. Sell, 2006.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 Critical History*. Boulder & London: Lynne Rienner.
- Menkhoff, Thomas, Hans-Dieter Evers and Yue Wah Chay(eds.). 2005. *Governing and Managing Knowledge in Asia*. New Jersey: NJ: World Scientific.
- Misa, Thomas J. 2004. *Leonardo to the Internet: Technology and Culture from the Renaissance to the Present*.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Nye, Jr., Joseph S.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 Palan, Ronen. 1997. "Technological Metaphors and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Michael Talalay, Chris Farrands, and Roger Tooze(eds.). *Technology, Culture and Competitiveness: Change and the World Political Economy*.

- London: Routledge, pp. 13~26.
- Qiang, Christine Zhen-Wei. 2007. *China's Information Revolution: Managing the Economic and Social Transformation*. Washington DC: World Bank.
- Rich, Andrew. 2004. *Think Tanks, Public Policy,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ecrance, Richard. 1999. *The Rise of the Virtual State: Wealth and Power in the Coming Century*. New York: Basic Books.
- Rupert, Mark. 2003. "Globalizing Common Sense: A Marxian-Gramscian (re-)vision of the Politics of Governance/Resistanc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9, pp. 181~198.
- Rao, Sandhya and Bruce C. Klopfenstein(eds.). 2002. *Cyberpath to Development in Asia: Issues and Challenges*. Westport, CT: Praeger.
- Said, Edward W. 1994.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Vintage Books.
- \_\_\_\_\_. 1979.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Books.
- Sell, Susan. 2003. *Private Power, Public Law: The Glob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nclair, Timothy J. 2005. *The New Masters of Capital: American Bond Rating Agencies and the Politics of Creditworthines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Slaughter, Anne-Marie. 2004. *A New World Order*.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ein, Janice Gross et al. 2001. *Networks of Knowledge: Collaborative Innovation in International Learning*.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Steinberg, Philip E. and Stephen D. McDowell. 2003. "Global Communication and the Post-Statism of Cyberspace: A Spatial Constructivist View."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0(2), pp. 196~221.
- Stone, Diane. 1996. *Capturing the Political Imagination: Think Tanks and the Policy Process*. Frank Cass Publishers.



- Stone, Diane and Andrew Denham(eds.). 2004. *Think Tank Traditions; Policy Research and the Politics of Ideas*.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Stone, Diane, Andrew Denham and Mark Garnett(eds.). 1998. *Think Tanks Across Nations: A Comparative Approach*.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Stone, Diane and Simon Maxwell(eds.). 2005. *Global Knowledge Network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Bridges Across Boundaries*. Oxford: Routledge.
- Strange, Susan. 1994. *States and Markets*. Secon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Pinter.
- Sum, Ngai-Ling. 2003. "Informational Capitalism and U. S. Economic Hegemony: Resistance and Adaptations in East Asia." *Critical Asian Studies*, 35(3), pp. 373~398.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 Zhou, Yongming. 2006. *Historicizing Online Politics: Telegraphy, the Interne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Chin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